

투데이 칼럼

2024년 세계 선거의 해

2024년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투표'를 하는 해이다. 세계 곳곳이 선거의 해를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은 11월에 예정돼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수일간 치러지는 인도의 입법부 선거, 하루에 치러지는 선거 중 최대 규모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도 있다. 이미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1월 13일)도 중국과 일촉즉발의 관계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다.

2024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된다. 지난 1월 7일 방글라데시가 야당의 선거 보이콧으로 가장 먼저 선거를 치렀다.

이어서 1월 15일에는 미국 대선 예비선거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공화당 아이오와주 당원대회가 있었고,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수십 개 국가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2024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이 넘는 60여 개국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투표할



정복규
논설위원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선거 보도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전쟁과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언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과 중동 등 2개의 대륙에서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 국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선거 쟁점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슈도 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이다. 2024년 선거의 해를 맞아 기후 위기 이슈를 어

떻게 의제화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Covering Climate Now)'는 영국 가디언지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기후 위기 저널리즘 기구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CBS, PBS, 알자지라 등 전 세계 500여 개 매체사가 파트너사로 활동한다.

한국에서는 프레시안, TBS, 한겨레21, 동아사이언스, 조선사이언스, 뉴스트리 등이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류의 기후 미래가 모두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와 기후 변화와 같이 유권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유권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뉴스 보도가 필요하다.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

운 해로 기록되었고 미국은 피해액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기후 재해를 경험했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멕시코, 미국, 유럽연합, 영국에 이르기까지 2024년에 기후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이 위태로운지, 후보자의 기후 관련 기록과 정책 제안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기후 계획이 과학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보도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고의 보도는 후보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그 계획이 과학이 요구하는 석유, 가스, 석탄 연소, 뉴스트리 등이 파트너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중의 압력 없이 기후 변화나 민주주의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권자들은 2024년에 이러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권자들에게 지식은 주는 통찰력과 힘을 갖춰줄 저널리스트가 필요하다.

사설

위험한 발암물질 요리매연

조리실의 '요리 매연'이 심각하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요리 매연'이라고 한다.

이 요리 매연 때문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열명 중에 세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백 명이 넘는다. 조리 시간 환풍기를 끈 상태에서 실내 미세먼지는 PM 0.3, 즉 '1천만 분의 3미터' 이하의 극초미세입자가 1리터당 212만 2천여 개로 나왔다.

일반 사무실보다 무려 2배나 많은 것이다. 환풍기를 켜면 입자가 144만 5천여 개로 30퍼센트 이상 줄어든다. 측정된 물질은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이다.

'조리홀'이라고도 하는 요리 먼지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보다 수백 배 이상 입자가 작다. 이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급식실 노동자 113명이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요리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 당국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식당도 요리 매연에 노출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식당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나뉘며, 매우나쁨 같은 기준이 있고 작업장에서의 허용치도 있다. 그런데 그보다 입자가 작은 요리 매연 극초미세먼지는 기준이 없다.

산재보험법에도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이 명시돼 있지만 극초미세먼지는 빠져 있다. 음식 냄새를 계속 마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요리를 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메가시티가 절실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메가시티 건설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경기 지역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메가시티' 반열에 든 서울보다 다른 지방 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이 광역화되면서 외곽 지역과의 갈등은 당연하다. 김포만을 편입하려는 논의는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 행정을 통일하는 것은 필요하다.

서울 밖의 지역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반면 도로, 철도, 종합의료 등 광역시설 주체가 나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하다.

생활권역이 달라지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거나 일지시키려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

러나 김포를 시작으로 하남, 구리 등 서울이 원하는 지역을 하나씩 편입시키다간 타 경기 지역 소외를 받게 된다.

경기에서 낙후된 지역은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 하나하나가 아닌, 수도권 전체를 놓고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연합 기구를 결성해, 교통·광역의료·물 관리·매립장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한다.

'정작 메가시티' 논의가 절실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생활 편의 차원에서 나오는 논의다. 반면, 지방은 그 지역의 존망 여부가 달린 문제다.

지방은 자본·인력 등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집적 경제를 잃어가고 있다.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거 외에는 회생할 방법이 없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인구 규모상 세계가 인정하는 메가시티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조우스탈 깃발 든 '석방'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미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방어했던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지난 8일(현지시간) 정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러시아 군포의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후 '아조우스탈 요새'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재로 각각 전쟁 포로 100명을 교환했다.

카타르, 요르단 꺾고 아시안컵 2연패 달성



카타르 선수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카타르는 요르단과의 결승전에서 이크람 아피프가 페널티킥으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3-1 승리와 대회 2연패를 이끌었고 8득점으로 득점왕에도 올랐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and sun,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전주매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